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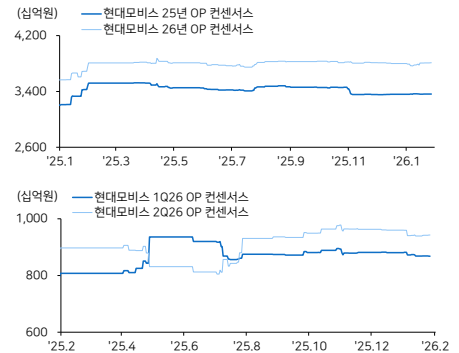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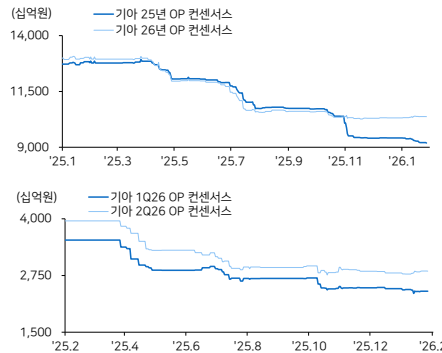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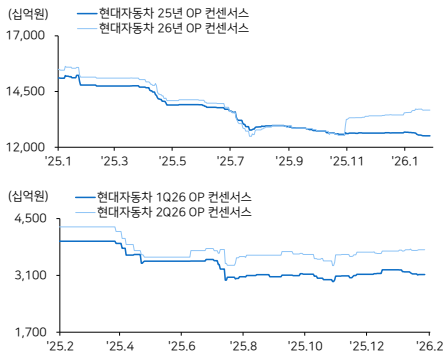
2026.1.30 (금)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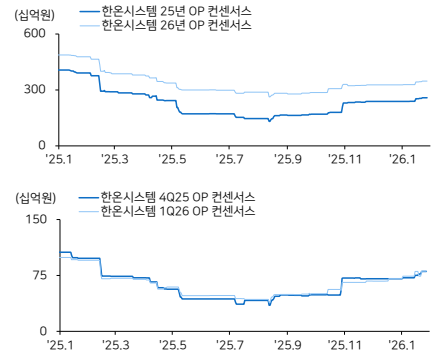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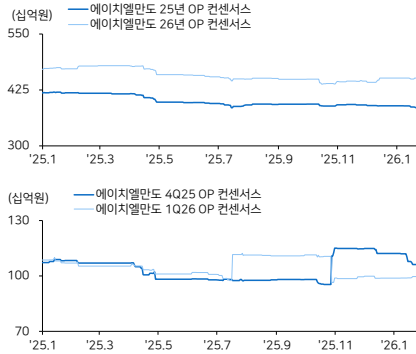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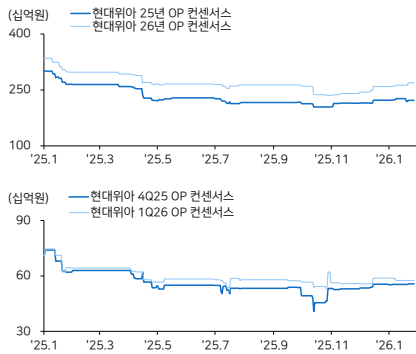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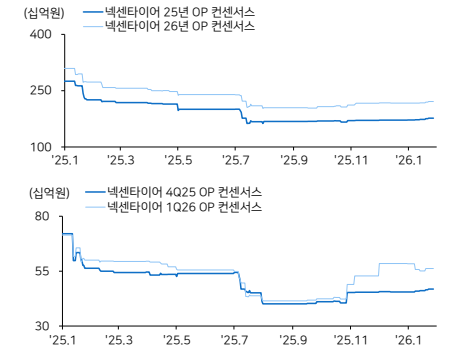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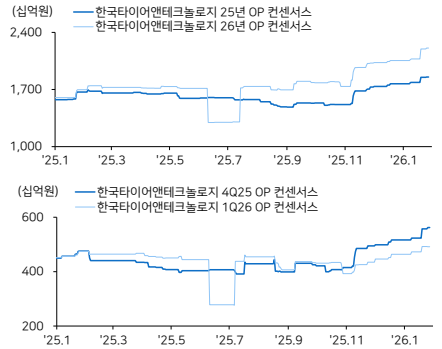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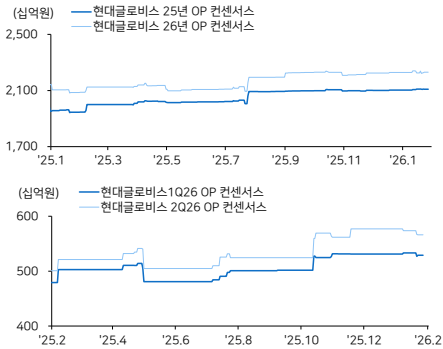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노조 '로봇 투입, 판 없었다'...이재정 "거대한 수레 못 띄워" (뉴스1)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생산 로봇 투입을 두고 현대차노조가 '노사 합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이 대동영이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띄울 수는 없다"고 논평. 이에 전국금속노조는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게 국가 역할인가"라고 대응
<https://han.gl/Tw8Ki>

카카오모빌리티 인수전, 현대차나 DH나... 로보택시 시대 주도권 잡힌다 (녹색경제신문)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인수전 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기점. 현대차그룹이 카카오모빌리티 인수에 적극적 인 이유는 택시 플랫폼 사업 진출이 아니라, 자율주행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
<https://han.gl/7W6Kv>

현대글로비스, 매출 29.6조원...역대 최대 실적 됐다 (한국경제)

현대글로비스, 지난해 가이던스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 기록. 비제일 고객 적극 확대한 덕분. 올해도 AI·로보틱스 등 신성장동 력 확보에 집중해 이어가겠다는 전략. 매출 29.6조원, 영업이익 2.1조원, 당기순이익 1.7조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
<https://han.gl/ZbdkP>

현대차, 1대도 안된다는데... 테슬라, 차 떼고 로봇 만든다 (조선일보)

테슬라, 대포 전기차 모델인 모델 S와 X 생산을 올해 2분기에 중단한다고 발표.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 Optimus를 생산하기 위함. 최근 Austin 공장에서 Optimus의 훈련용 시차원 가운 로봇의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
<https://han.gl/AUC547>

Musk's SpaceX in merger talks with xAI ahead of planned IPO, source says (Reuters)

SpaceX와 xAI가 올해 예정된 대규모 IPO 앞두고 합병 논의 중. 이번 계획은 머스크가 구글·메타·오픈AI 등 거대 IT 기업들과의 AI 경쟁에서 주도권 잡기 위해 추진 중인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
<https://han.gl/pzIQO>

현대차, 관세 영향 등 매출 4조원... "비상 계획으로 만회" (뉴스1)

현대차,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관세와 인센티브 비용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 역성장. 내부적으로 추산한 관세 효과는 4.1조 정도. 이 중 60%를 비상계획 통해 만회했고, 인센티브 영향 등 반영에 올해 영업이익이 산정됐다고 설명
<https://han.gl/98h5i>

현대차, 북미 현지화와 로봇으로 관세 위기 돌파한다 (전자신문)

현대차, Capex는 미 경제 대응 위한 북미 현지화 투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전동화 대응 차량 라인업 강화에 9조원, 전 략투자는 1.4조원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또한 HMGMA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위한 실증을 지난 해 말부터 진행 중
<https://han.gl/Rg6Dd>

현대차·기아, 10cm 이하 좁은 안전 기술 '비전 펄스' 개발 (뉴스1)

현대차·기아, 비전 펄스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 이는 초광대역 전파를 활용해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첨단 센싱 기술이며, 장애물 많은 도심지 교차로 등에서 주변 100m 범위에서 10cm 이하 범위 내 파악이 가능한 것이 특징
<https://han.gl/qFfIS>

테슬라, 역대 최대 투자...AI·자율주행·로봇 중심 사업 재편 가속화 (머니투데이)

Tesla, 실적 발표에서 올해 자본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4년의 11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고 발표.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100억 달러의 2배 규모로 지난해 85억 2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
<https://han.gl/eF9nN>

'엔비디아 연할 vs 테슬라' 자율주행 경쟁 본격화...'레벨3 상입회 원단' (뉴스1)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 자율주행 부문에서 연합형과 폐쇄형 진영의 상업적 경쟁 본격화하면서 올해가 레벨3 자율주행 상입 회의 원년이 될 것이라 분석. 친환경차 전환은 HEV 선풍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계 기업이 기술 경쟁을 자극할 것이라 전망
<https://han.gl/MfF7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